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2. 19.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I. 결의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황인구 의원 외 41명 공동발의
- 나. 제안일 : 2018. 10. 8.
- 다. 회부일 : 2018. 10. 29.
- 라. 의안번호: 14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현재 한반도는 민족의 화해,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남북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서울특별시 또한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의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에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취지

-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지방정부 중심의 교류 및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음.

###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바 있음.
-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음.
- 특히 서울시는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시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문화, 체육, 경제 영역에서의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붙임. 1), 이를 전담해 지원할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음('18. 11. 1).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가 추진하게 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대해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1)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의 고유한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가 구성<sup>2)</sup>될 경우 소관업무 중복이나 활동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미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이나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등을 추진하고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붙임. 2)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타당성은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에 따른 기대효과는 물론이고 전속적으로 소관위원회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향후 서울과 평양간의 도시협력사업의 본격 실행단계에서는 관련 위원회 모두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3)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조희하였음(붙임. 3)

1) 제33조(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기획경제위원회

라. 남북협력추진단에 관한 사항

2)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기획경제위원회는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설된 전담기구인 ‘남북협력추진단’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관련 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붙임. 1).
- 한편, 남북 정상선언 합의 과제 중 우선 추진과제인 사회문화교류 (2023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서울-평양(경평) 축구대회 재개,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공연 등)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남북교류협력 우선과제 사업을 소관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별도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붙임 1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추진사항

### 1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활동으로 서울-평양 간 체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도모 및 한반도 평화·번영의 기반 마련

#### □ 사업개요

-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가칭)서울-평양 공동협력위원회’ 구축 및 운영
- 공동 유치 연계 서울-평양 체육문화예술 교류협력사업 추진
- 공동유치 관련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 및 시민참여행사 추진

#### □ 추진현황

- 「서울-평양 공동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 통일부,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 진행 (총 11회)
  - ※ 정부 차원의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주무부처로 통일부·문체부가 공동 지정됨에 따라 양 부처 간 업무 조율 중
- 2032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계기 **서울-평양 체육문화교류사업 발굴추진**
  - 민간단체 등을 통해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체육문화사업 발굴·추진 중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 포럼**」 추진
  - 올림픽 유치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와 당위성 확산을 위한 시민공감포럼 추진

####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 포럼 】

- 일시장소 : '19. 11. 26(화) 14:00~18:00 /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 주 최 : 통일부, 서울시 공동주최
- 주 제 : ‘서울-평양, 올림픽으로 함께 꿈꾸는 평화미래’
- 참 석 자 :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체육회장, IOC위원, 관련 전문가 등 약 500명

#### □ 향후계획

-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협력위원회」 구성 : 11월~
- 올림픽 공동유치 연계한 서울-평양 교류행사 추진 : 11월~
-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공감포럼 개최 : 11. 26.

## 2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서울-평양 도시협력 추진

'안전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 지속 가능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서울-평양 도시 간 신뢰구축 및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기반 마련

### □ 사업개요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실행을 위한 대동강 수질개선 공동협력체계 구축
  - 사업계획 구체화, 실행계획 마련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 다방면의 교류협력 기반마련을 위한 대동강 수질개선 '3개 분야별' 계획 수립
  - 인도협력 :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약품 제공 등 식수환경 개선
  - 환경협력 : 중랑·양재·청계천 등 한강 주요 지천의 생태공원화 경험 전달
  - 교류협력 : 한강시찰단 초청, '깨끗한 물' 관련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신뢰형성

### □ 추진현황

-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구상 검토·보완
  - 한강개발 노하우 최대한 활용, 현지 실정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구상
- '서울-평양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위촉, 서울-평양 '깨끗한 물 공급' 협력사업 관련 자문 등
    - ※ 자문단 : 市 유관부서, 수질,환경,생태,개발협력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 우선, '깨끗한 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계획 마련
  - 평양지역 병원·학교 등에 식수개선 협력사업 계획수립, 유관기관(통일부 등) 협의

#### 【 깨끗한 물 공급 협력사업(안) 】

- ◇ 안전한 물 공급 : 병원·학교 등 다중시설에 소독약품, 휴대용 수질측정기 제공
- ◇ '물' 접근성 개선 : 태양열 전력 활용한 식수공급장치, 지하수 시추장비 등 공급
- ◇ 기술·관리 지원 : 유해물질 검사 기술, 태양광 하천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

### □ 향후계획

- 인도적 차원의 '깨끗한 물 공급' 협력사업 공식 제안(서울시 → 통일부)
-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 분야별 사업내용 협의(서울시 ↔ 평양시)

### 3

## 서울-평양 간 인도적 협력사업 지속 추진

北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긴급구호 발생에 대비한 국내외 협력 강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한 실행력 확보 등 상시 지원 추진

### □ 사업개요

- 식량 등 인도적 지원사업의 전문성·실행력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 국제기구·민간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실행체계 구축(Two Track)
  - (국제기구) 실행력 있고 국제사회에 공인된 기구(WFP)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지원
  - (민간단체) 역량있는 국내외 NGO와 연계해 식량지원, 보건의료 협력 실행력 제고
- 만성 식량부족 해소 등을 위한 농업·의료 분야 교류 및 역량강화 지원

### □ 추진현황

- 재난·재해발생 등 취약계층의 긴급 구호 대비 협력체계 상시 가동
  -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도지원 TF 구성·운영
- 北 식량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내외 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 대북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식량 등 인도지원 추진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100만불(11.7억원) 공여, 영유아 영양개선 지원
    - ▶ 영유아 3만 3천명 × 6개월 간 영양강화식품(슈퍼시리얼, 영양비스킷) 제공
-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지속 협력
  -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예방에 필수적인 의약품 등 긴급 지원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 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 신청(10.22, 통일부 검토 중)
    - ※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10.22)

### □ 향후계획

-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TF 상시 운영
-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인도적 협력사업 지속 지원



## 4

# 평화통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확대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하는 교육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및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 □ 사업개요

- 대학생, 청년, 가족, 공직자 등 교육대상별 맞춤형 평화·통일 교육 실시
- 민간단체, 자치구 및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 확대

### □ 추진현황

- **시민참여 및 자치구 평화·통일 교육 지원 사업 확대·다양화**
  - 시민참여형 18개('18년)→33개('19년), 자치구 6개('18년)→15개('19년) 확대
  - 팟캐스트 등 최신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다양화 및 자치구 특성을 반영한 주민교육
    - ※ 교육사업 성과공유·확산을 위한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12.17~22, 신청사)
- **공직자 통일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직자 평화·통일 교육 기회 확대**
  - 통일교육원·인재개발원 등 시·구 직원 대상 교육신설, 명사초청 특강(2회)
    - ※ 신입자 교육, 6급 미래인재양성 과정, 공직자 집합교육, 사이버 교육 등 5천여명 수료
- **통일 미래세대인 청년 대상 평화·통일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 신설**
  - 서울청년 평화아카데미 우수 성과자 및 민간단체 활동가 27명 선발·운영
  - 발대식 및 사전교육(2회), 북·중 접경지역 탐방(7.4~8), DMZ 방문(10.5~6), 기차단 등 서포터 활동(8~11월/월1회), 최종보고회(11.16 예정)
-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협력사업 발굴·관리 등 전문강의 진행 (1차: 4.5~5.26 / 2차: 10.11~12.1)
- **세대간 평화·통일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
  - 서울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및 가족 200여명 대상 2회 개최 예정(12월)
  - 놀이·체육, 과제수행, 토론, 현장방문 등 세대간 대화와 참여 프로그램 마련

### □ 향후계획

- 평화·통일 가족캠프 추진(2회) : 12.7 ~ 8 / 14 ~ 15
- 평화·통일 교육 성과발표회 및 전시회 운영 : 12. 17 ~ 22

## 5

# 시민 참여를 통한 평화·통일문화 조성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기회 확대 및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 확산·조성

### □ 사업개요

- 학생부터 노인층까지 전세대가 함께 하는 시민참여 평화·통일문화 조성
-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인식개선 기회 마련

### □ 추진현황

-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학술회의** (4.24)
  -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남북관계’ 등 3개 세션,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시민관심 제고(500명 참석), 판문점 디오라마 전시(4.21~5.12) 등
- **한반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5.1~6.10)
  - 사업 전 과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평화·통일 문화 분위기 확산
  - 유튜브 콘텐츠, 정책브랜드, 스토리텔링 분야 공모(140개 작품접수)
  - 신청사(7.2~5), 한반도평화성취박람회(9.21) 수상작 전시(18개)
- **평화경제 엘리버드 청년 아이디어톤** (8.23~8.24)
  - 2030 청년세대의 남북교류 관심제고 및 ‘평화경제’ 활성화 유도
  - 평화경제 청년포럼, 아이디어톤 등 2030세대 150명 참여
- **서울시민이 만들어가는 하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9.21~29)
  - 한반도 평화통일 체제구축, 인도지원,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에 대한 소통 및 합의도출(4대 권역, 739명 참여)
  - 서북권(9.21) → 동남권(9.22) → 동북권(9.28) → 서남권(9.29)
-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함께놀자, 동무야’ 추진**
  - 아동·청소년 세대의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해소 및 평화·통일 공감확산
  - 교과서, 동화책 등 북한아동도서 전시(서울도서관) 및 북콘서트 개최(3회 예정)

### □ 향후계획

- **평화·통일 공감 특별 기획전시 및 북 콘서트 개최** : 12.6 ~ 12.29

## 붙임.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현황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요('05.1월 설치)

- 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구성 : 19명 (위원장 등 외부위원 14, 시의원 2, 당연직 3)
  - 위원 :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임기 2년, 연임 가능)
  -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 목적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등
- 자격기준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 시 관계공무원
  - 시의회 의원
- 심의사항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 기본계획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 및 평화·통일 교육 지원 등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현황

(단위 : 회)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횟수	5회	5회	5회	2회	5회	4회	2회	5회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횟수	6회	6회	4회	6회	9회	9회	13회	86회

※ 2019년 운영현황은 12월 현재 기준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19.12월 현재 기준)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계	19명		
위원장	문 정 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위촉직	강 석 현	민족정기바로세우기 연합회 회장	한반도자원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구 갑 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김 기 현	남북저작권센터 대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
	김 용 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박 계 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홍익대학교 융합예술연구센터 연구교수
	백 미 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신 준 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유 재 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이 찬 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장 용 철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윤이상 평화재단 상임이사
	최 선 영	연합뉴스 한반도부 기자	연합뉴스 북한부, 민족뉴스부, 북한자료부 기자
	최 혜 경	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추 장 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
	김 정 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이 호 대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당연직	황 방 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	오마이뉴스 남북관계 전문기자
	유 연 식	서울시 문화본부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
	조 인 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 **붙임. 3**    **기획경제위원회 의견 회신**

- 서울시는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25대 핵심전략으로 삼는 등 통일기반조성을 강화하고 민간·정부·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주요추진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전담하기 위해 ‘18.11.1 일자로 “남북협력추진단”(3급 기구)이 신설되었음.
- 최근의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촉발된 남북평화·번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실무를 관할하기 위한 조직구성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과정임.
- 또한, 비록 한시기구이지만 기능별 책임전담 및 고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국’단위 기구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된 바,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추진 초기 단계에서는 소관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여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이나 활동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기가 적절하지 않음.
- 물론, 과거에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되었으나, 그 활동이 대단히 미진 하였고, 각종 정부의 통제권으로 서울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점까지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